

實質的인 韓·日의 國際分業의 問題

失島 鈞 次 / 東京工業大學 教授

本會는 지난 11월 28일 日本의 韓國産業經濟研究所와 공동으로 「韓·日 電子工業 産業內 分業 促進 懇談會」를 롯데호텔 36층 大會議室에서 개최한 바 있다. 日本측에서는 三菱電機 등 업계와 相關 기관에서 19명이 대거 참석하였고 國內에서는 韓國 마벨 등 70여 업체에서 참석, 상호 협력 문제를 다각적으로 협의하였다. 本稿는 日本측 團長인 失島鈞次 東京工業大學 教授의 講演과 駐韓 日本大使館의 Hukuda 參事官의 인사말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本人은 韓國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70년도 이후의 經濟 동향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주의깊게 分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은 韓國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아주 인상이 깊었던 것은 서울 江南 지역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團員 일행과 工場 見學을 했는데, 대상 기업이 모두 5년 전에 비해 技術 수준이 전혀 다르게 현격한 向上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만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에 놀랄 만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해 주신 韓國電子工業振興會에 이 자리를 빌어 團員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技術 수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면, 상호간의 기술 격차란 것은 어떤 부문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부문에서는 오히려 韓國이 오히려 우수한 경우도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만, 어쨌든 장차는 韓國도 優劣을 가리기 어려운 기

술 수준을 확보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日本에서나 韓國에서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별로 화제가 되지않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美國의 經濟 戰略, 그밖에 産業구조의 변화 문제, 國際企業간의 戰略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美國이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実行중인 80年代 프로젝트 件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韓·日 兩國 經濟가 놓여 있는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80年代 프로젝트는 68年度에 닉슨 政權이 성립된 시점부터 그 기반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닉슨은 大統領 當選 후에 5年 計劃을 수립했는데, 그 계획에는 71年 8月の 닉슨 쇼크로 불리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同年 12월에 있었던 스미소니언 會議 문제라든지, 73년에 있었던 美 달러貨의 變動 換率 문제들이

프로그램으로 5個年 計劃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80年代 프로젝트는 닉슨 실각 후에 일시 軌道 수정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거쳐 카터 정권의 中期에 이르자 美 經濟界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에 관한 재조정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80年代 프로젝트는 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다소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韓, 日은 물론 西歐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美國의 주요 戰略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相對國들은 그 범위 내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産業 구조의 변경, 둘째 國際金融 체제의 재편성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한 美國의 戰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면, 美國의 산업 구조 전환 政策이 글로벌한 全世界의인 측면에서 美國은 情報産業, 宇宙産業,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高度化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동시에 그와 같은 첨단 산업 부문에서 美國이 계속 리더쉽을 고수해 가겠다는 내용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 長技로 하고 있는 自動車, 造船, 家電, 鐵鋼 등은 美國에서는 이미 낡은 산업 분야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家電 등 이른바 낡은 산업 분야란 것은, 첨단 산업 분야로 전환을 했다 해서 불필요해진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産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첨단 산업 분야를 산업 구조의 중심에 두고 볼 때, 자동차 등 낡은 산업으로 인정된 분야는 저렴하고 Industry的인 위치에 고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산업 구조 전환 政策을 착착 추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본의 매스컴 같은 데서는 美國 産業의 空洞化란 말이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美國의 산업이 첨단 산업 위주로 구조가 점차 高度化 되어 가고 반면에 낡은 산업이라고 불리어지는 SubIndustry 분야는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저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美國 産業의 空洞化란

것은 美 政府가 산업 구조 정책상 예정된 코스를 그대로 실행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合理的인 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國際金融 체제의 재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83年 가을에 레이건 大統領이 日本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日本측의 생각으로는 오렌지, 肉類 등 美 農産物에 대한 輸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연설을 통해 金融 資本의 自由化라는 것을 요구하여 닉슨 쇼크 이상으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뉴욕, 런던, 東京 3개소가 세계 3大 金融센터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86年 10월 22일, 런던에서 빅 밴이라고 불리어지는 이른바 株式去來 自由化가 취해진 바 있습니다. 美國은 75年 5월 1일, 200년에 걸친 慣行을 떨쳐 버리고 株式 売買 수수료의 자유화를 단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 런던의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3大 金融市場의 自由化 문제가 거론되어 東京만 독자적인 체제를 고집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어서 韓國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주지하다시피 資本市場의 民間化를 통해서, 세계의 Gold man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한국의 株式市場 자유화를 통하여 流入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資本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저의 기대는 한국 자체로서도 찬동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업은 자본 조달이 지금까지처럼 海外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資本市場을 통해서 조달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유명 Brand의 株式, 예를 들면 三星, 金星, 大宇의 株式은 필연적으로 런던 株式市場에 上揚될 것입니다. 런던市場에서 실적이 좋으면 다음은 뉴욕의 株式市場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런 경위를 밟으면서 한국의 금융이 國際化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美國의 86年代 프로젝트, 현재는 90年代 프로젝트의 흐름 속에 한국이나 日本의 위치가 定立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일의 현재 상



황을 살펴보면 거의 틀림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관련되어 있는 金融은 오늘날 国境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바야흐로 Super Government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는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民族의 독립적 主權을 유지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업 측면에서 기업이 국내에서만 활동을 국한시킨다든지, 금융면에서도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發展은 기약할 수가 없고 특히 세계적인 발전 대열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 停滯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經濟의 경우, 3低 메리트를 통해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나 觀點은 조금 빛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 3低 현상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要因으로 온 것이고, 이 외부 요인이란 측면에서는 한국과 같은 3低 메리트를 향유할 수 있는 같은 조건의 國家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3低 현상의 환경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는 韓國과 台灣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노력으로 한국 경제 자체가 포텐셜한 에너지를 갖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 Basic한 Technology의 축적도 그 동안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3低 현상의 活用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러한 노력의 축적이 없었다면 3低 현상이 到來했다 하

더라도 활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최근 몇 년간에 급성장해 온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團員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대화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의 기술 수준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이 되고 또 일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업이 금융 측면에서 국경이 없는 오늘날, 韓·日 양국이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상호 보완하고 부족한 것을 양보해 가면서 그 協力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円高 현상때문에 어쩔 수 없이 韓國에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같은 國際分業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부적인 면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조성을 양국 정부가 해주시고, 이런 환경하에서 양국의 경영자 여러분들은 협력이나 合作 문제를 보다 더 자유롭게 추진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업계가 가지고 있는 Know-How를 고수하자는 생각도 幕을 내리는 시대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것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인상을 앞으로는 계속 해소시켜 가야 할 것이며 더욱더 긴밀한 協同 작업을 통해서 Know-How 移轉 문제를 포함한 협조 체제의 추진을 위한, 기탄없는 對話가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할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認識下에 대화를 진전시켜 갈 수 있다면 兩國의 협력 관계는 크게 발전되어 갈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對話의 조건 같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技術 수준에서 양국의 격차가 거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도 기탄없는 협동작업이나 대화가 이루어질 만한 조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업이 번영을 계속해 갈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양국 기업인들이 격의 없는 말씀을 통해서 결실이 큰 결과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일본측 団員을 대표해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같은 숲숨을 통해서 양국 기업인들

의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숙되고, 이 같은 관계가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向後 海外投資는 協調 체제의 構築 爲해

Hukuda 参事官/駐韓 日本大使館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신 日本의 団員 여러분과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韓國産業經濟研究所가 마련하신 간담회에 참석케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86년도 經濟 성장은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貿易収支面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40억弗의 黒字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産業 구조 측면에서 보더라도 70年代 이래 추구되어 온 重化學工業化와 함께 電子工業에서부터 지금은 情報化가 이루어지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면만 있고 문제시되고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商工部에 의하면 部品工業이나 中小企業 측면이 약간 불충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商工部를 중심으로 部品の 國産化政策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年初의 大統領 敎書에도 나타나 있듯이 中小企業의 육성 정책이 강조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技術 開發에 집중적으로 資金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이 같은 政策이 시행되면 한국의 산업 구조도 高度化를 이루고 그 기반 역시 확고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현안 문제인 対日 貿易 逆調도 점진적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円高를 계기로 해서 韓·日간의 産業 협력은 크게 진전될 것이며, 특히 자동차, 電子工

業 등에서는 이미 여러 부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韓·日의 협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美·西歐를 포함해서 각종 제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서, 세계적인 규모로 그룹간의 경쟁이 더욱 격심해질 전망입니다.

日本の 海外 投資란 70年代初에 현저한 증가 현상을 보였는데, 당시 주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약간 저조했다가 다시 美·西歐를 중심으로 활발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최근의 美·西歐 중심의 해외 투자에 대한 동향에 있어서 다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通商省의 자료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앞으로의 政策 방향으로서 黒字 해소 그리고 海外 協力 체제의 구축이란 관점에서 海外 投資를 확대해 가겠다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이 調査團이 편성되어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의 간담회에서는 午後의 시간 동안 업체간의 個別商談 스케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기대는 자못 큰 것입니다.

日本大使館으로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韓·日 협력 관계에 새로운 突破口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